

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월 20일, 경상북도지사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월 2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
(2023년 2월 1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

나. 제안이유

- 문화관광분야의 유사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여 대내 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와 (재)문화엑스포를 통합운영하고자 함.
- 두 기관의 통합에 따른 업무, 기능, 조직 및 인력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수행사업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의 운영계획 및 연계사업을 추가함.(안 제20조)
-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추가함(안 제21조의2)
-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사용료 감면 근거를 추가함(안 제27조의2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성태)

가. 개정이유

-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각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7월 29일 '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'을 발표 한 바 있으며,
- 경북도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방공공기관 구조혁신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 구조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
- 이에, 문화관광분야의 유사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'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'와 '(재)문화엑스포'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20조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수행사업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의 운영계획 및 연계사업을 추가하여 두 기관의 기능적 관계와 역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다만, 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제10호를 '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운영계획 및 연계사업'에서 '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운영 및 연계사업'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안 제21조의2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문화엑스포사업 운영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됩니다.
- 안 제27조의2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의 사용료 감면 근거를 추가하여 엑스포공원 운영에 따른 사업 연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부칙 제1조에서 조례를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'(재)문화엑스포'의 청산일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
- 부칙 제2조에서 「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」의 폐지조항을 두었고, 부칙 제3조에서는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 대한 경과조치사항을 두어 기관통합과 조례시행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.

다. 종합의견

-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는 경상북도의 역사·문화·자연·생태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 홍보하고 지역관광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,
-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사업 추진과 국내외 맞춤형 관광마케팅,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(재)문화엑스포는 경북 문화발전과 문화엑스포를 통해 경북도를 세계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.
- (재)문화엑스포의 경우, 1998년 9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를 시작으로 24년동안 엑스포 10회 개최¹⁾ 된 후, 2019년 이후 중단, 현재는 엑스포공원 상시개장에만 주력하고 있어 존립목적이 상실²⁾되었고, 방만경영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³⁾된 바 있습니다.

<표1>최근 5년간 (재)문화엑스포 당기순이익(손실) 및 직원 급여 현황

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당기순이익	-3억9천만원	-35억4천만원	-46억2천만원	4억8천만원	-7천만원
임직원 급여	16억8천만원	14억1천만원	22억3천만원	22억4천만원	25억8천만원

* 임직원 급여: 대표이사, 임원, 사무직(정규직), 임기제, 공무직, 기간제근로자 포함
자료: (재)문화엑스포

- 1) 1998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내 7, 국외 3, 총 10회 개최됨. 이후 핵심사업인 국내외 문화엑스포 개최 사실상 중단.
 2) 「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」 제3조(사업) ①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1. 문화엑스포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
 2. 국내·외 문화엑스포 개최
 3. 역대 국내·외 문화엑스포 기록물 전시를 위한 기념공원 조성
 4.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의 상시개장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
 5. 제4호의 운영을 위한 전시관, 미술관, 박물관, 영상관, 체험관 건립·운영
 6.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및 건축물 유지관리
 7.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필요한 사업
 3) 제305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,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(2018.11.22.) 등 자료

<표2>최근 5년간 (재)문화엑스포 전입금 제외 사업 수익 및 사업성 지출 현황

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전입금 제외사업 수익(A)*	9억1천만원	7억1천만원	18억1천만원	13억4천만원	22억원
사업성 지출(B)**	268억원	98억6천만원	195억7천만원	84억3천만원	134억1천만원
실제 지출액 대비 수익(A-B)	-258억9천만원	-91억5천만원	-177억6천만원	-70억9천만원	-112억1천만원

* 전입금 제외 사업 수익: 입장권, 부대시설, 시설임대 사업 등 수익

** 사업성 지출: 임직원 급여, 업무추진비, 홍보비 등

자료: (재)문화엑스포

- 그동안, 경북도의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 현황을 살펴 보면, 2022년 7월 19일 '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(안)'을 통보하고, 실국별 통합 추진 TF팀을 구성하여, 문화, 산업, 교육, 복지, 호국 분야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.
- 이 중 문화분야 구조개혁안인 본 개정조례안과 「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만 의회로 제출(2023.1.20.) 되었습니다.
-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관련 단체와 도민들의 의견에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와의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과 두 기관간 통합 후 재무부실 우려에 대한 대책 및 고용승계 등에 대한 밀도있는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.
- 양 기관의 통합은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혁신 정책에 부응하고, 문화·관광 분야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며, 대내외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문성 강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
- 다만, 산업, 교육, 복지, 호국 등 타 분야의 구조개혁의 경우,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청취 및 회의개최 등 심도 있는

논의를 통해 장기적 추진을 검토⁴⁾ 중이며, 통합이 공사의 조직 비대화와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두 기관간 통합논의를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7. 수정안의 요지 : 붙임참조

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4)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분야 중 문화분야를 제외한, 산업분야 1.2차 회의개최(2022.7월 8월) 및 통합방향 설명(2022년 10월), 교육분야, 1차회의(2022년 8월) 이후 중장기추진 결정, 복지분야 1차회의(2022년 8월), 설명회 개최(2022년 9월), 호국분야, 1차회의(2022.8월) 이후 관계기관 및 도의회 반대의견으로 장기검토과제로 전환됨.